민주 광주시당 선대위 출범…“이재명 90% 압도적 득표”

지역 원로·종교계·전현직 국회의원 등 참여한 통합 선대위 구성

12일 5·18민주광장서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8일 ‘광주시민 100만 투표 90%득표’를 목표로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선대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 기조에 맞춰 ‘통합’에 방점을 두고 지역원로, 종교계, 전·현직 지방의원, 기초 단체장, 직능별 인사 등으로 꾸렸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광주 선거대책위원회’(광주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 선대위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광주의 투표율(81.5%)과 득표율(84.82%)을 기준으로 5%p 상향해 21대 대선 목표를 정했다.

광주선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광주선대위는 투표율과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지역위원회와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역·직능별 2가지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 밀착형으로 골목마다 최대한 많은 민심을 듣기위해 나설 계획이다.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남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활동과 겹치지 않게 운영하되, 세심하게 민심을 챙긴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광주선대위는 지역 원로와 종교교인 등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지자체 기초의원들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함께 이종석 기독교교단협의회장, 지선 무량선원 주지 스님, 오은도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김승원 광민회 상임대표,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맡는다.

광주선대위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재후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지역 등에 더 공을 들일 방침이다.

당시 남구 봉선2동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38.8%에 달했다.

광주선대위는 봉선 2동의 경우 지역 사업가들이 많이 거주한 상황에서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민주당 득표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이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반 기업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상쇄 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지원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광주시민은 내란을 극복했고, 마침내 사법 쿠데타까지 꺾었다”면서 “계엄·파면·사법 쿠데타를 이겨낸 힘의 근원은 바로 광주시민의 5·18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중앙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도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로 12·3 비상계엄을 진압했다”며 “이제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고, 6월 3일에 승리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손팻말을 들고 승리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힘 탈당’ 김상욱, 5·18 광주에 온다

강기정 광주시장 초대 화답…이재명 후보 “조만간 한번 봤으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이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전야제에 광주를 찾는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초대에 화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징”이라면서 “5월 17일 5·18 전야제에 이어 다음날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탈당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시장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5·18 민주주의 대축제에 초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며 “깊은 고뇌와 힘든 결단을 응원한다”면서 “현재형이 된 ‘5·18’에, 보통명사인 ‘광주’로 꼭 오시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직 광주시와 구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올해 5·18 행사에 꼭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광주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 민주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화의 성지”라면서 “5·18 민주 대축제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우리가 일깨우고 또 앞으로도 지켜나가도록 다짐해가는 지금 현재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다짐의 장”이라고 5·18을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을 통해서 구체화됐고 87년 헌법은 광주항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게 큰 용기를 준 광주 시민들과 광주의 역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5·18 민주 대축제에 참석해서 광주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탈당후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없다”면서 “며칠 조금 생각을 가다듬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김 의원의 탈당과 관련, “이번 탈당은 결국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신의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2차 담판도 ‘빈손’

시기 놓고 입장차 재확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후보 단일화 2차 담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으나 ‘단일화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재확인, 담판은 1시간만에 종료됐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완료하자고 거듭 촉구했고, 다음 주에 단일화를 완료하자는 입장인 김 후보는 ‘왜 무소속 후보가 당 선출 후보를 압박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어떤 단일화 방식도 당에서 정하면 다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이 결국은 하기 싫다는 말씀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 “김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의 ‘단일화’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어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 (김)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말 있죠. 그렇게 될 것 같다”며 “제발 ‘일주일 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내일 결판을 내자”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단일화의 첫 번째 대상은 (한덕수) 총리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고 물었다. 한 후보가 당 경선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부전승’을 하려 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며 당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관세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던 점을 꼽았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왜 안 들어오느냐고 하는 것은 정말 사소한 문제”라며 반민주적 정부의 등장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는 어디서 오셔 가지고 저더러 빨리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저에게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고, 한 후보는 “책임이 있으신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민주, 한덕수 고발…“李 ‘광주사태’ 발언 허위 주장”

박지원 향해 ‘배우자 무속 심취 새빨간 거짓말’ 발언도 명예훼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민주당으로부터 “군사반란 세력의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원단은 “한 예비후보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한 주장을 하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지원단은 한 후보가 박지원 의원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 또한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3월 5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녹색숲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 378, 4층 (벽진동)
청산인 정 예 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호영(610412-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문산로 61, 103동 101호 (문흥동, 라인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호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느단3584호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2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9일

• 상속인 : 정찬임(650224-2XXXXXX) 광주 북구 문산로 61, 103동 101호 (문흥동, 라인아파트)
• 신고기간 : 2025. 5. 9. ~ 2025. 7. 1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정찬임의 주소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텃밭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창석(491005-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중문로 55, 305동 920호 (우산동, 우산주공3차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창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느단3604호로 신청하여 2025년 5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9일

• 상속인 : 김유진(820317-1XXXXXX)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 112동 2702호(화정동, 더샵염주센트럴파크)
• 신고기간 : 2025. 5. 9. ~ 2025. 7. 1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유진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기독간호대학교 총장 초빙 공고

학교법인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에서는 기독간호대학교 총장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고자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①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② 기독교 세례교인
③ 부교수급 이상인 자
④ 총장 후보자는 교내 · 외 인사로 한다.
단, 4년 임기말까지 만65세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이력서 (교육 및 대학보직, 재직경력 포함) – 1통
② 연구실적물 (최근 10년이내 발표논문, 석 · 박사논문 별도기재) – 1통
③ 자기소개서 (A4, 2장 이상) – 1통
④ 대학경영계획서 (4년 총장재임 중) – 1통
⑤ 기독교 세례증명 (출석교회 당회장 발행) – 1통
⑥ 간호학 박사학위 증명 (졸업대학원 발행) – 1통

3 서류 접수 기간
공고일부터 2025. 5. 15(목)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서류 접수처
학교법인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주 소 : 우편번호 61661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광주기독병원 內 총무과)
전 화 : 062-650-5641, 팀장 김홍옥

5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8일

학교법인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이사장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